

# 톤백도 모자라 활주로 외곽에도 유해가...유가족 '비통'

(1t 마대자루)

## 제주항공 참사 잔해물 재조사 한달여

7차례 중 5차례 64점...9점 희생자 확인  
휴대폰 5대·유류품 707류음도 발견  
유가족 "공황 철조망 안쪽에도 다수"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15일 활주로 외곽 담벼락을 따라 순찰하던 중 발견한 유해 추정 물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제공)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잔해물 재조사가 한 달여 진행된 가운데 수습점의 유해 수습도 모자라 활주로 외곽에서도 10여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특히 활주로 외곽 발견은 잇따른 부실 정황에 연일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이 자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대목에서 현재의 수습 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 ◇7차례 재조사...내달까지 이어질 듯

15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시작된 잔해물 재조사 및 잔해 보관

개선 작업이 현재까지 총 7차례에 이뤄졌다. 톤백(1t 마대자루) 속 잔해물을 꺼내 하나하나 살피는 작업을 통해 ▲2월28일 1점 ▲3월5일 1점 ▲3월6일 7점 ▲3월12일 24점 ▲3월13일 31점 등 총 64점의 유해 추정 조각이 수습됐다.

이중 지난 6일까지 발견된 9점은 인골 여부 확인과 DNA 대조를 거쳐 희생자 7명의 유해로 최

종 확인됐다. 나머지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한 확인 및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앞서 수습된 유해 추정 조각 모두 인골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나머지 역시 그럴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유해 추정 조각 외에도 휴대폰 5대와 함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품들이 유류품으로 추가 분류됐다.

유류품 수습은 같은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한 데 모으는 방식인데, 현재까지 분류된 양은 707류음이다.

유가족들은 아직 열지 않은 톤백의 양을 감안하면 재조사 및 개선 작업이 다음 달까지는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작업 순서가 가장 마지막에 수습됐던 것부터 참사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이고 최근 발견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의미 있는 발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담벼락 순찰 유가족들 유해 발견 '경악'  
이날 무안공항 활주로 외곽에서 담벼락을 따

라 순찰 중이던 유가족에 의해 유해 10여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발견 지점은 참사 당시 여객기가 활주로 끝의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폭발한 뒤 그 충격으로 동체가 부딪쳐 무너진 담벼락 인근이라는 게 유가족들의 설명이다. 일부는 담벼락 안쪽이 아닌 바깥에서도 확인됐다.

유해의 크기는 서로 다른데, 조각 같은 일부가 아니라 뼈 자체로 보이는 것도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유해가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길을 걷다가 조금만 자세히 보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 ◇전면 재수습·관련자 엄중문책 촉구

유가족이 발견한 유해 중 담벼락 안쪽에 있는 건 제한 구역인 탓에 아직 수습되지 못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신속한 수습과 함께 활주로 안쪽에 발견되지 않은 유해가 다수라며 신속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희생자 분들을 참사 1년3개월여간 바깥에 계시게 했다는 게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유가족들은 죄스러워하고 있다"며 "단 한 점의 유해도 바깥에 남지 않고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참사 초기 대처 실패를 인정한 만큼 책임지고 유해 등 재수습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가족협의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사 수습 책임을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잔해를 노지에 방치하고 그 속에 유해와 유류품이 섞여가게 방치한 반인륜적인 현장 정리를 누가 계획하고 지시했는지 낱알이 밝혀야 한다"며 "모든 유해를 온전히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영 기자

## 제주항공 참사 특수단, 국토부 압수수색

### 원인·대응 적절 여부 등 규명 차원

경찰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5일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국토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 13일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참사 원인과 관계 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한 차원으로 전

해했다.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참사 당시 국토부 행정위성정책과 관계자 2명, 공항운영과 2명 등 4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건자들의 세부 혐의 적용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총 64명을 입건했다. 이 중 19명은 특수단 출범 이후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인재영 기자

## 양성 반응에도 필로폰 투약 부인 20대 구속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투약 혐의를 부인하던 20대가 결국 구속됐다.

1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2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3일 광주 북구 소재 주거지에서 정맥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을 인지, 검거에 나선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체포해 소변간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A씨

는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찬웅 기자

### 지인 모텔로 불러 살해 50대 긴급체포

숙박업소로 지인을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죽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여성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15분께 여수 학동 한 모텔에서 지인인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일 전부터 이곳에서 숙박했던 A씨는 범행 전 B씨를 숙소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김진선 기자



'3·14 파이데이' 지난 14일 '세계 수학의 날'을 맞아 국립광주과학관이 원주율 근삿값 3.14에서 유래한 '파이데이'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참여자들이 파이에 대한 생각을 칠판에 적고 있다. /조영권 기자

## 주말·휴일 광주·전남서 화재 잇따라...2명 숨져

### 서구·나주서 각각 40·70대여 사망

주말·휴일 광주·전남 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라 2명이 숨졌다.

15일 광주시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0분께 서구 화동동 한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3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장비 20여대와 인원 60여명을 투

입해 신고 접수 20분 만인 오전 5시10분께 불을 모두 꺾다. 진화 과정에서 발화 세대에 있던 A(40대·여)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같은 주택의 다른 세대 주민 5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덕에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화재장내 세탁기에서 불이 시작

된 것으로 보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남 오후 1시27분께에는 나주 다도면 풍산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장비 6대와 인원 23명을 투입한 소방 당국에 의해 오후 1시27분께 완진됐다. 이 불로 화재 현장에 있던 B(70대·여)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소방 당국은 B씨가 농업 부산물 등을 소각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이연상 기자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 ASTRO

##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형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8g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형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형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